

주간 조남희 7주차 - 독서 해설편

|

23.06 / (가) 육가의 『신어』, (나) 『치평요람』의 관점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진이 분서갱유를 통해 사상 통제를 했다는 말을 하며 지문을 시작합니다. 배경지식이 없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있는 그대로 “진의 분서갱유를 통한 사상 통제”를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지식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문장입니다. 분서갱유는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묻은 사건입니다. 이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묻었으니 사상 통제를 한 거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지식을 강조하는 트렌드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사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상 통제를 한 시대의 권력자이니,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겠죠. 특정 인물의 관점이니 정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앞서도 말했지만, 분서갱유의 뜻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를 몰랐다 하더라도, ‘사상 통제니까~’라는 식으로 납득하며 독해했다면 조금 더 수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 내용을 통해 납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역사 지식을 허언으로, 학문을 문제로 본)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순자의 관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순자는 “다른 사상에 대한 비판적 흡수 + 통합 학문”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역사 지식과 학문을 비판한 시대에서는 약화되었겠죠. 관점을 확보하고 앞 문장을 통해 납득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코멘트

여기서 간혹 순자의 관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 순자의 관점 그 관점이 진 시기에 약화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한나라 시기 사상가들이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한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앞서 제시된 내용이 문제(멸망)의 ‘원인’이겠죠. 이렇게 생각했다면 뒷 내용을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려웠다 하더라도, 문제 상황(진의 멸망)에 대한 원인(뭘까?) 정도로 구조적 접근이라도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멸망 원인 분석하여 통치 방안 제시), 힘의 지배를 ㉢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지시어를 정확하게 당겨 읽읍시다.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통치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문제의 원인에 맞는 해결

이 제시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힘의 지배를 숭상한 태도 극복으로 구체화됩니다. 최소한 <문제에 대한 해결 = 한나라 시대의 관점> “힘의 지배 극복” 정도는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멸망 원인 분석, 힘 지배 태도 극복)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지시어를 계속 당겨 읽어야 합니다.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힘 지배 태도를 극복하려는 것이 육가의 관점입니다. 역시 관점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이렇게 문단 마지막에 육가의 관점을 제시한 경우 기출에서 이것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관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육가입니다. 여기서도 최소한 순자의 학문 계승했다는 사실은 잡고 가서, 선지 판단 시 이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코멘트

가장 이상적인 독해는 순자는 “다른 사상에 대한 비판적 흡수 + 통합 학문이었으니 순자도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건가?” 정도의 생각을 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기출 분석 시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실전에서는 최소한 사실을 잡아두고 선지 판단 시 이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신어)을 통해 그(육가)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육가의 관점에서 진의 ‘문제 원인’을 제시합니다. <가혹한 형벌, 법률에‘만’ 의거, 군주의 교만, 인재 등용 실패>가 제시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원인들을 지적했으니 이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독해가 진행될 것입니다.

- 코멘트

원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지 판단 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물어본다면 돌아와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육가의 관점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육가는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육가의 관점이니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비교 · 대조 쌍

실제 독해 시 a와 b가 대조되는 전개 방향이라면 a를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a이후 제시되는 b를 읽을 때는 a와의 공통점과 구분되는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역사 지식과 학문을 천시한 진나라와 대비되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하다는 관점인 육가의 관점을 명확하게 확보한 순간 이 지문의 전체적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로 접근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식의 접근이든 결국 이 두 관점의 명확한 차이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육가)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관점이 구체화됩니다. 약간의 센스가 있다면 앞서 역사 지식의 무용을 비판한 것에 대응되어 육가가 지식의 핵심을 현실 정치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기적 독해가 되지 않더라도, 관점은 확보하고 선지 판단 시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p - 대립쌍
저는 여기서 핵심이 현실 정치라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기출에서 자주 나오던 포인트로 이론, 현실 적용 (약간 조선 후기 실학 처럼 이론 vs 현실 같은 맥락이죠) 같은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기출에서 이런 대립쌍 포인트를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대립쌍에 대한 이해는 지문 이해와 문제 풀이 시 굉장히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필히 민감한 반응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육가)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 통변의 개념을 정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물은 '모든 일을 포괄하는 것' / 통변은 '유동적인 것' 정도로 각각의 정의를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당겨 읽기 (관형절도 당겨 읽어라.)
해당 부분을 독해할 때 그냥 통물, 통변이라는 워딩만 챙겨가면 안 됩니다. 분명 관형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고, 심지어 ㉠, ㉡이 붙어 있으니 무조건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특정 대상을 수식해주는 관형어(절)이 있다면, 대상만을 확보하며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관형어(절)과 대상 모두를 하나의 의미로 확보해주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사소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독해 태도이므로 꼭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인의의 개념 역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입니다. 즉 두 개념이 정치 세계(현실)에서 드러나는 양상이라는 것이죠.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육가의 관점이 또 제시됩니다.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은 하는데,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왕도를 제안하고, 인의 실현을 위한 유교와 현실의 결합을 제시합니다. 최소한 관점을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앞서서 육가의 관점을 정확하게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했다면,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은 인정, 그런데 그 유지는 힘만으로 안 되네?'와 같이 육가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점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구체화된 관점을 '이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이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

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육가는 인의 실현을 위해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교를 '중심으로' 사상을 활용합니다.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한 표현은 중요합니다. 육가가 유교 '중심'이라는 점은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진나라의 문제 원인)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관점을 확보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이야기한 것이 육가이니, 당연히 진의 문제의 원인으로 거론된 것에 대한 해결을 제시합니다. 과한 형벌 반대, 군주 수양, 현명한 신하 임용으로 정치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tip - 문제의 '원인' 그에 맞는 해결
지문의 구조에만 매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글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거시적인 흐름을 잡는 것에 있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도 진 나라의 문제의 원인에 맞는 해결이 나올 것이라는 인식이 갖춰져 있다면, 여기서 제시되는 육가의 관점이 해당 문제 원인에 대응되는 해결이라는 인식을 통해 관점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순자의 관점을 받은 육가입니다. 그런 통합적 학문이니 과한 융통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통합의 사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관점을 정확하게 확보했으면 당연한 말이 됩니다. 물론 그러지 못했다하더라도 지문 마지막에 제시된 한계와 의의이니 체크 정도 해두고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tip - 다양한 인물 / 개념어의 등장?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 지문이라면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구조화해서 독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필연적으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 지문도 인물이 꽤나 많이 나오고 (나) 지문까지 하면 절대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때 돌아왔을 때 빠르게 정보를 찾기 위해 독해 시 인물 / 개념어에 잘 보이게 인물이름 표시 하든, △ ○ ☆로 표시하든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표시하시면서 독해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해 시 밑줄을 남발하거나 기호를 남발하여 독해보다 기호가 주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기호의 단순 남발이 아닌 본인이 틀에 맞는 기호 사용은 문제 풀이에 효율성을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문도 각 관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병렬적 정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 코멘트
- 핵심 확보 (관점 파악, 대립쌍)
- 문제의 원인, 그에 맞는 해결
- 당겨 읽기

지문 초반 제시된 진, 순자, 육가의 관점을 확보한 상태로 이를 당겨 읽으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진나라 시기와 육가의 관점 차이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조금은 더 수월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통물, 통변, 인의의 개념 등이 제시될 때 관형절 역시 정확하게 당겨 읽으며 하나의 의미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인물이 나올 땐 실전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 각 인물에 대한 표기(체크)에 대한 고려도 실전을 위해서라면 생각해 볼 요소입니다.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나) 지문에서는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 얘기를 할 건가 봅니다. (가), (나)의 유기성을 생각한다면, (가) 글과 비슷하게 (진나라 문제, 그에 대한 해결) 진행될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 보다 조선이 뛰어난 설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이 글의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려의 단점(문제의 원인과 상황) 그에 대한 해결(조선의 장점) 정도를 정확하게 잡겠다는 인식으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인 ㉠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주관 개입되었다는 문제가 있네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체크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여기서 간혹 오독을 할 수 있는데, 고려에 관한 역사서에 대한 문제점이 지 고려 시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아닙니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고려의 역사서에 대한 논쟁이 제시됩니다. 고려 용어 그대로 실자, 유교에 맞춰 다시 쓰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완성은 되었네요. 어떤 관점으로 쓰였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문장 내에서 두 관점을 구분해주고 있으니 이런 구분되는 두 관점을 구분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모두가 아는데 다수가 간과하는 부분

거시적으로(구조적으로) 두 쌍이 나올 때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공통점도 중요하다는 독해 태도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비교·대조 구조의 지문이 나올 때와는 달리 이 문장처럼 문장 내(여기서는 두 문장 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지문의 트렌드가 대놓고 명확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지양하고 구조의 혼합, 밀도 높은 문장을 지향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단순히 글의 전체적인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독해 태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문장 단위에서 응당 이루어져야 할 독해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고려사 편찬하는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여기서도 경서와 역사서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용된 것 같지만, 경서는 근본이고, 역사서는 현실입니다. (가) 지문 해설에서도 말했지만, 기출에서 이론과 실제(현실 적용)는 구분되는 포인트로 자주 나왔습니다. 기출에서 이런 반복되는 요소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가볍게 독해했으면 충분합니다. 『치평요람』이 중국과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한 책이네요. 그럼 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 문장 내에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따른 것은 강목을 따른 것이지만, 편찬 형식 측면은 강목을 따르지 않았네요. 이렇게 문장 내 구분이 (나) 지문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치평요람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기존과 다른 특징을 나열해주고 있으니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되, 만약 물어보면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기> 문항을 풀 때는 돌아와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편찬 방식(앞서 나열된 특징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앞서 나열된 특징들은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것과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나) 지문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 조선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핵심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고려 시대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조선이 유교)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국교가 불교였다는 점, 조선이 유교 사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고려의 사상 폐단을 비판하고, 조선의 유교적 사회로 변화를 이끌었을 겁니다.

- 코멘트

고려 국교가 불교, 조선 국교가 유교라는 점은 상식입니다. (가) 지문에서도 분석했듯, 진나라 등도 그렇고, (나) 지문에서도 아주 얇은 역사 지식만 알아도 지문 독해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사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한국사의 흐름은 알아야 합니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용비어천가』 제작의 의의를 말하며 지문 독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무리로 용비어천가의 의의 정도를 체크하고 독해를 마무리했으면 충분합니다.

- 코멘트

용비어천가가 저런 특징이 있다는 것은 16.11 문학에서도 제시되었고, 교과서 등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렇게 교과서에서 알 수 있는 개념을 지문에서 노골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 코멘트

- 핵심 확보 (관점 파악)
- 문제의 원인 그에 맞는 해결
- 문장 내 구분, 대립쌍
- 지식적 요소

(가) 지문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글이 진행되었습니다. (나) 지문 역시 고려의 문제, 그리고 조선의 장점을 서술하는 흐름 속에서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의 원인에 맞는 해결을 잡았으면 수월하게 독해가 진행됐을 겁니다. 여기서 중간중간 문장 내에서 구분할 대상을 구분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조선과 고려에 대한 알팍한 지식만 있더라도 수월하게 읽혔을 지문입니다. 아마 한국사를 공부했다면 조금 수월했을 겁니다. 교과 과정 내 지식을 무시하지 말고, 어차피 절대평가로 무조건 해야 하는 한국사도 간과하지는 맙시다.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①

(가)는 한나라 시대에 기술된 『신어』, (나)는 조선 시대에 기술된 『치평요람』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시대 상황과 사상, (가)는 진 멸망 이후 한 나라, (나)는 고려 멸망 이후 조선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머지 선지

② : (가)가 국가 통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피지배 계층을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으니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③ : (가)는 전국 시대의 『순자』, 한나라 시대의 『신어』를 다루고 있으니 동일한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나)에서 기술된 책들은 조선 초기에 서술된 책입니다. 아예 동일한 시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선 초기라는 시기로 묶을 수는 있습니다.

④ : (가)에서 핵심으로 다룬 『신어』는 학문을 중요시하지만, 핵심은 현실 정치에 대한 도움입니다. 또한 (나)의 『치평요람』 역시 학문적인 내용과 현실 정치에 대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둘 모두 학문과 실용을 다룬 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⑤ : 오히려 (가)에서 육가가 서술한 『신어』를 다뤘고, (나)에서 편찬자의 주관에 개입된 문제로 인해 국가 주도로 편찬한 책을 다뤘습니다.

- 코멘트

선지 판단 시 선지를 끊어 읽으며 실전에서는 확실하게 틀린 걸 본 순간 다른 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③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 목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문장 내에서 구분된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진나라 시대 권력자인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었습니다.

② :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④ :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입니다.

⑤ :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습니다.

- 코멘트

정보 연결 등은 거의 없던 일치 수준의 선지입니다. 문장 내 구분이 중요함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물
 - ㉡ : 유동성 있는 통변
 - ㉢ :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
- ⇒ 이는 육가의 관점이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지식임을 인식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답 ㉣
 육가는 ㉣이 실현되는 정치 즉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을 주장했고,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 ㉠ : 통물은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주장한 육가는 통합 학문의 틀을 보인 『순자』의 학문을 계승했습니다.
- ㉡ : 육가에서 중심 이념은 유교입니다.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유교를 중심으로 다른 학문을 수용합니다.
- ㉢ : 육가는 형벌을 가벼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 : 육가가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 ㉡이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이고, 이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코멘트

+ 해설은 명확하게 근거를 모두 명시적으로 달아 서술해서 길어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진 나라의 문제의 원인, 그에 대한 육가의 해결 관점이라는 점을 파악했다면, 선지 판단이 조금 더 수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 ㉣의 개념을 정확하게 당겨 읽어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인의의 내용이 제시된 다음 문단에서 정보를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cf) 20.11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지문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두 문단에서 나뉘어 제시된 것.

7. 윗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답 ㉠

- ㉠.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가)에서는 진 나라의 폐단을 통해 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려는 관점이 드러납니다. 또한 (나)에서는 고려를 거울삼아 조선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려는 관점이 드러납니다.
- ㉡.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가)에서 육가는 진 나라의 멸망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옛 국가인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나)에서도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즉 이들도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이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 ㉢.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우선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의 관점은 더 좋은 국가들 만들기 위한 것이지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관점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상적 폐단을 지적하며 더 좋은 국가를 만들려 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상적 공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 지문에서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는 것이 사상적 공백이 있었나? 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아예 공백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나)에서 고려에 불교 사상이 있었다고 대놓고 제시해줬으니 사상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문 흐름에 따라 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해 우선적으로 서술한 사고 과정이 더 적합하다 생각하지만, 실전이라면, 그냥 (나)에는 불교가 있어서 사상적 공백이 없었는데? 정도로 빠르게 처리했어도 무방합니다.

- 코멘트

결국 핵심은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그 관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있어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구조를 알면 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분석 = <보기>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하라 했으니, <보기>에 제시된 관점 파악이 핵심이다.

- ㄱ. 옛 일의 진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필수. 역사 서술 근원 명확하게.
- ㄴ. 천하의 일은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
- ㄷ. 도의 본치는 경세, 큰 쓰임은 역사서. 역사는 선 높이고 권면하고, 악 낮추고 징계함.

답 ②

ㄱ의 관점이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았습니다. 오히려 고려의 용어들을 유교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것은 진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역사 서술의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상충됩니다.

문장 내에서 구분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것을 문맥상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옛 일의 진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필수라는 ㄱ의 입장에서 당연히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할 것입니다.

③ : ㄴ은 천하의 일은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④ : ㄷ은 도의 본치는 경세, 큰 쓰임은 역사서. 역사는 선 높이고 권면하고, 악 낮추고 징계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의 단명 원인을 제시한 역사 지식이 담긴 『신어』에 제시된 비판이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ㄷ의 도의 본치는 경세, 큰 쓰임은 역사서에 대응되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코멘트

+ 22.06 인과 지문의 <보기> 문항과 비슷합니다. <보기>에 제시된 관점과 지문의 관점을 대응시켜야 함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 만약 4번 선지가 지엽적인 면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경서와 역사서를 엄밀하게 구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③

23.06 / 혈액 응고 및 순환 과정과 비타민 K의 역할.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혈액의 기능에 대해 얘기하며 지문을 시작합니다. <혈액 = 세포 필요 물질 공급 + 노폐물 제거> 정도로 혈액의 개념을 잡고 독해를 시작합니다.

- 코멘트

혈액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등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쩌면 상식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를 자연스럽게 납득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첫 문장이니 혈액의 기능을 의식적으로라도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그죠? 출혈이 생기면 당연히 그걸 막아야 하나가요. 이를 혈액 응고로 손실을 막네요. 혈액 응고가 손실을 막는다는 정도는 기억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이를 독해할 때 상처 났을 때 딱지가 생기는 것만 떠올랐어도 독해가 조금 더 수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혈액 응고로 문제를 해결하니 당연히 확보하고 가야 할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장에 있는 정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피브리이 + 혈소판 마개 = 혈병> 정도로 혈액 응고의 과정을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가장 이상적인 독해는

“섬유소 단백질인 = 피브리이” + “혈소판 응집 + 혈소판 마개” = “혈병” 이와 같이 관형절을 정확하게 당겨 읽으며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이와 같이 독해하는 것이 베스트이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앞서 서술한 것처럼 최소한의 의미 파악은 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혈액 응고가 혈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혈관 속 혈병 = 혈전 정도로 개념을 잡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 코멘트

해당 지문에서는 ‘A인 B’ / ‘A를 B라 한다.’ 식의 서술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체적 예시를 같은 의미로 잡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같은 범주로 설정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은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cf) 19.11 가능세계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만약 Q이면 Q이다.” = “필연적인 명제” 이런 사고를 갖추고 문제로 접근했을 때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 ‘만약 A면 A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

이와 같이 같은 의미를 같은 범주로 설정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혈액에 이물질이 끼면 동맥 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연스럽게 독해했으면 충분합니다. 문맥적으로 의미를 계속 파악했다면, ‘혈액 속에서 생기는 혈전도 이런 문제와 관련 있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의 응고 및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1문단을 끝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혈액의 응고와 순환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어떤 단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핵심으로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 해당 문장은 글의 전개 방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준 문장입니다. 글의 전개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를 핵심 화제로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 저는 처음 이 문장을 독해했을 때, ‘응고랑 원활한 순환은 다르지 않나? 근데 어떻게 둘 다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에 매몰되기보단, ‘응고와 순환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어떤 단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면 되지’라는 핵심을 메인으로 독해를 진행했습니다. 지문에서 설명해 준다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대놓고 제시했으니까요.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당연합니다. 바로 앞서 혈액의 응고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충분합니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앞서 비타민 K가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했는데, 지방에 녹는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에 녹는 물질 = 비타민 K”입니다.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합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혈액 응고가 단백질로 구성된 인자들의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정이 제시될 것이니,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인식 + 그중에서도 비타민 K의 기능을 핵심으로 두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 코멘트

그런데 상식적으로 <비타민 ≠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K는 응고를 돕는 것이니,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들의 반응을 돕는 것’ 정도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독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독해가 실전에서도 가능할까는 의문입니다. 기출 분석 시에는 여기까지 봐볼 수 있다는 정도로 납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과정 서술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과정을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 인자들 활성화 이후 →>로 정리된 상태로 과정을 채

워복시다.

tip - 과정 서술

과정을 통으로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 서술이 나오면 밀도가 높음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춰 과정을 끊어 읽으며 각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과정을 계속 정리합니다. 한 문장, 문단 내에서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아예 필기를 하면서 독해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 응고 인자들 활성화 이후 →프로트롬빈 활성화→트롬빈이→피브린을 피브린으로 전환>

- 코멘트

+ 이를 독해할 때 ‘피브린’을 보고 앞서 서술된 <피브린 + 혈소판 마개 = 혈병>이 즉각적으로 떠올랐으면 베스트입니다. 동일한 정보가 나왔을 때 이를 연결해야 하고, 현 수능에서는 정보량이 많을 때 정보의 연결을 요구하니까요. 물론 실전에서 이런 사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선지 판단에서라도 이게 가능할 수 있게, 다량의 개념어가 나오면 체크 정도는 해두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는 것은 녹아 있는 것을 녹지 않는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어휘력이 갖춰졌다면 여기서 피브린이 녹지 않는 것, 딱지? 정도로 생각하고 독해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우리의 핵심이 제시됩니다. 비타민 K는 앞서 제시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하는 겁니다. 비타민 K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핵심이었으니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 혈액 응고 인자들 활성화 관여” 정도로 핵심을 확보하고 결국 이 비타민 K의 과정은 <비타민 K의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관여 → 혈액 응고 인자들 활성화 이후 →프로트롬빈 활성화→트롬빈이→피브린을 피브린으로 전환>의 과정으로 진행됐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코멘트

cf) 22.11 차량 영상 왜곡 보정, 시점 전환 지문에서도 해당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타민 K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려면, 칼슘 이온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때 또 필요한 것이 카르복실화입니다.

- 코멘트

이런 서술 흐름은 익숙해야 합니다. ‘A는 B이다.’ ‘B는~’ 식으로 서술 해주면 구체적으로 서술된 개념을 확보해야 하고, 만약 워딩만 제시되면 워딩 정도만 체크하고 독해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카르복실화의 구체적 개념이 제시됩니다. 어휘 자체를 통해 납득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 정리라도 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카르복실화 =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카르복시글루탐산 되는 거>

tip - 어휘 자체를 통한 이해

어휘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납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00화’라는 건 결국 ‘00’과 유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지화’ 정도를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카르복실‘화’이니 단백질 구성 아미노산이 카르복실글루탐산으로 전환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납득은 하고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여기서도 같은 범주를 대응시키기를 요구합니다.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 = K-의존성 단백질”로 같은 범주로 설정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정보량이 적은 지문이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정보량이 꽤나 많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럴 때는 지문에 ‘=’ 표시 정도라도 하며 둘이 같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정보량이 많을 때 범주 파악을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생각할 요소입니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①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②비타민 K2로 나뉜다.

우리의 핵심인 비타민 K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합성되는 K1 동물과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K2로 구분되었습니다. 당연히 식물, 동물을 구분해준다는 인식 정도로 독해를 이어가 봅시다.

tip - 상위 범주 / 하위 범주

지문 독해 시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인식하지 않고 독해해서 상위 범주의 개념을 하위 범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독해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비타민 K1이든, K2이든 결국은 비타민 K의 범주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 상위 범주에서 별 다른 언급이 안 나오면 공통점, 둘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차이점)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cf) 18.09 LP : 자기 지시적 문장 중 거짓말쟁이 문장이 있음.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K1은 충분히 먹으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가볍게 이해하면 충분한데, 여기서 ‘그러면 K2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독해를 진행했다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지문 초반 화제를 정확하게 잡았다면,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기능 = 원활한 순환’이라는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전에서 그걸 놓쳤다면, 칼슘의 역설을 통해 기능을 파악한다는 인식으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칼슘의 역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역설이란 뜻을 알고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칼슘이 부족해 칼슘을 섭취하지만, 오히려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접근했을 때 하나의 문제 상황을 제시해준 것이니,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인식을 했으면 베스트입니다.

- 코멘트

반복하지만, 역설이라는 어휘 뜻만 알아도 칼슘의 역설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맙시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가 부족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잡아야겠죠. 결국 비타민 K 부족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활한 순환을 담당하는 비타민 K의 기능을 파악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문의 핵심을 인식하고 독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대놓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필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두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 유도 / K1은 간세포 K2는 그 외 세포, 주로 K1은 혈액 응고 인자 / K2는 그 외 세포 합성 단백질

tip - 비교 · 대조 쌍

실제 독해 시 a와 b가 대조되는 전개 방향이라면 a를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a 이후 제시되는 b를 읽을 때는 a와의 공통점과 구분되는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코멘트

+ 여기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가 주로 왜 K1일까요? 이는 앞서 제시한 정보와 연결됩니다. 지문 앞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활성화될 때'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런 서술이 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독해했으면 베스트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구분된 상태로 선지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로' K1이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에 작용하는 겁니다. 지문에서 보조사, 부사어 등은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앞서 비타민 K1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비타민 K2에 대해서 따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비타민 K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이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 뜻을 의미를 파악한 상태로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tip - 기본은 문장(feat. 전제)

결국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기본입니다.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하기 가장 어려운 독해 태도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문장 내에 있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장을 생각하고 가는 태도라고 봅니다.

이때 '이건 사후적 해설이야.' '실전에서 이게 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적어도 이렇게 분석할 때만큼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문에서 문장에 대한 이해(의미 파악 등)를 정확하게 하시는 독해 태도를 갖추시는 연습을 하여 그런 문장(생각이 필요한)을 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고 넘어가는, 진짜 최소한 선지에서 그 문장을 물어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될 수 있게 노력합시다.

cf) 20.09 점유, 소유 : '점유개정은 선의취득 안 되네' 까지만 이해한 사람과 '반환청구권은 선의취득 되나?'까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의 차이.

1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①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고,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합니다. 즉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지는 것이 아닌, 섬유소 단백질이 뭉친 피브린과 혈소판 마개가 뭉쳐 혈전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인과 관계를 주의합시다.

나머지 선지

② :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즉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③ :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니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합니다.

④ :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아야 합니다.

⑤ :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은 혈관에 이물질이 쌓이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 코멘트

과정 서술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11.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②

칼슘의 역설은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데,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칼슘 보충제를 먹는 행위 자체가 K1의 효용성과 관련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습니 다. 이렇게 아예 제시되지 않은(지문 내에서는 추론도 불가능한) 비례 관계를 다루는 문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cf) 19.09 STM <보기> 5번 선지

③ : 오히려 칼슘의 역설은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이지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 것입니다.

⑤ :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코멘트

어휘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비타민 K1 / ㉡ : 비타민 K2

답 ④

㉠, ㉡은 구분되지만 비타민 K라는 상위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표적 단백질 =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입니다.

그러니 둘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주로 ㉠이 간세포에서 ㉡이 그 외 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이지, 간세포에서'만', 그 외 세포에서'만' 합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 둘 다 단백질 K입니다. 단백질 K가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된 것을 고려할 때 둘 다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③ :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합니다. 그러니 둘 모두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변형을 유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⑤ : ㉠은 일반적 권장 식단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은 이를 위한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지문에 제시된 문맥에 따르면 ㉡은 일반적으로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코멘트

상위 범주에 대한 이해는 핵심입니다.

cf) 22.06 PCR : 전통적 PCR, 실시간 PCR 모두 PCR이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분석

비타민 K의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관여 → 혈액 응고 인자들 활성화 이후 →프로트롬빈 활성화→트롬빈이→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
피브린 + 혈소판 마개 = 혈전

(가) : 트롬빈엔 작용 안 함. 비타민 K 작용은 방해함.

⇒ 트롬빈에는 작용을 안하는데, 비타민 K의 작용은 방해하면, 애초에 첫 단계를 방해.

(나) :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

⇒ 마지막 단계인 피브린을 분해? 그러면 굳는 게 없음.

(다) :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 억제

⇒ 트롬빈을 억제하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이 억제되겠네. 비타민 K-의존성엔 작용하지 않으니, 앞 단계에는 영향이 없음.

이와 같이 <보기>에서 지문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 ③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이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합니다. 그런데 (다)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가)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니, 적절합니다.

② : (나)는 피브린을 분해합니다. 혈전은 피브린 + 혈소판 마개이니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④ : (가)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고, (다)는 트롬빈을 억제합니다. 이 둘은 모두 피브리노겐의 앞선 과정이므로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⑤ : (나)는 피브린을 억제하고, (다)는 그 앞 단계인 트롬빈을 억제합니다. 그러니 이 둘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코멘트

과정은 필히 정리해야 하는 점, 선지에서 무엇을 물어볼 때 선지가 물어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문항의 경우 결국 핵심인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의 중요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총평

- 핵심 확보
- 정보량 견디기
- 과정 서술
- 비교 · 대조 /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지문 초반부터 정보량이 많이 제시됩니다. 용어를 정리하며, 1문단 마지막에 제시된 ‘응고와 순환에 대한 단백질 K의 기능과 단계’를 핵심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응고의 과정을 정리하며 이때 단백질 K의 단계, 순환의 과정에서 단백질 K의 기능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 후반부에 제시된 비타민 K1과 K2의 상위 범주가 비타민 K라는 점을 인식하고 둘의 차이를 구분했어야 합니다.

이런 지문은 특히나 분석과 실전의 괴리가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들을 스스로 연결하며 분석하는 과정과 실전에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며 갈 것인지(필기 등)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던진 지문입니다.

23.06 / 이중차분법에 대한 이해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사건의 효과는 정책 논의를 위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즉 사건의 효과가 근거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상식적인 문장입니다. 어떤 근거(현상)가 있어야 그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납득하고 갔으면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도 “사건 효과 = 증거”의 맥락은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히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려면 행위 전 후의 결과를 비교해야겠죠.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납득할 정보는 자연스럽게 납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해당 문장을 이해하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니다. 해당 문장에서 납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이 문장을 납득하려면 ‘그지 가상으로 시행하면 어떻게 파악해?’ 정도는 생각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완벽하게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며, 최소한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앞서 최소한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러니까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결과를 파악할 수 없으니, 사건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해서 비교하겠죠. 앞선 문맥을 통해 정보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p - 당겨 읽기 (관형절도 당겨 읽어라.)
해당 지문의 단순 일치 문항이 정답률이 10%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를 답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시간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저는 관형절을 정확하게 당겨 읽는 태도의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사건을 경험한 표본의 시행집단 /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 각각을 관형절을 당겨 읽어 의미를 파악했다면 경험했다는 것과 경험하지 않았다는 대립쌍을 통해 문장 내에서 두 대상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집단이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험적 방법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점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정 대상을 수식해주는 관형어(절)이 있다면, 대상만을 확보하며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관형어(절)과 대상 모두를 하나의 의미로 확보해주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사소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독해 태도이므로 꼭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 낄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여기서 상식적 사고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낄 이유가 없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다른 외부 변수가 많으면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요. 이 정도의 사고는 의식적으로 진행되었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납득되었든,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구체적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임금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사건이 없다면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것은 결국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낄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 코멘트

구체적 예시는 항상 상황을 정리하고, 앞 내용을 당겨 읽으며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사건이 없다면 두 집단의 결과 차이가 낄 이유가 없게)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사건이 없다면 두 집단의 결과 차이가 낄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은 표본의 임의 배정인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왜 실험적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납득하면 가장 베스트이지만, 최소한 지문에서 대놓고 ‘이상적’이라고 해줬으니 이는 챙겨서 독해를 진행합시다.

- 코멘트

제가 이 지문을 처음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과생이지만, ‘큰 수의 법칙’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큰 수의 모 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큰 수의 법칙을 떠올리지 않았더라도, 임의 배정이 공평하다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람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 다루면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나 봅니다. 앞서 실험적 방법을 납득하지 못했더라도, ‘이상적’이라 제시한 것만 확보했어도 ‘이상적’이니 현실에서 적용이 어렵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실적인 흐름이 제시되었죠.

tip - 대립쌍
이는 경제, 과학 등에서 빈번한 흐름입니다. 이론과 실재를 구분하는 것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구분하는 흐름은 하나의 대립쌍으로 기출에서 이미 자주 빈출된 표현입니다.
대립쌍에 대한 이해는 지문 이해와 문제 풀이 시 굉장히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필히 민감한 반응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 코멘트

cf) 22. 예시 충전지 지문 :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다른 충전지와 달리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
⇒ ‘다른 충전지는 일부만 방전하고 충전해도 되는구나.’

이런 사고 과정으로 ‘아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구나.’ 이런 사고 과정이 진행됐으면 베스트입니다. 문장에서 내포된 전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의 공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공식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중차분법 : 시행집단 변화 - 비교집단 변화 = 효과>

- 코멘트

공식이 제시되면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cf) 20.11 BIS

이는(이중차분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평행추세 가정을 관형절을 통해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없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거라는 건 결국 평행추세 가정은 <사건 없을 때 : 비교집단 변화 크기 = 시행집단 변화 크기>입니다. 공식이 제시되면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합시다.

이 가정(사건 없을 때 : 비교집단 변화 크기 = 시행집단 변화 크기)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건이 만족되면, 평균적으로 같은 집단을 하지 않더라도 된다는 것이 앞서 제시된 평균 임금이 같은 예시에 해당하는 실험적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대상이 제시되었을 때 두 대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tip - 조건은 답을 결정한다.

'조건'이 제시된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필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건이 문제로 출제되고, 답을 결정 짓는 경우가 기출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으니까요.

해당 부분에서도 '비교집단과 시행집단의 변화의 차이가 같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조건이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도 정확하게 확보했다면 이후 제시되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조금 더 수월하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제시되면 필히 그 조건을 확보하고 해당 조건이 만족되어야 진술이 참이 됨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합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들에 주목했다.

해당 문장을 보고 예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중차분법이 활용되는 예시가 제시될 것임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시행집단)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비교집단)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사건의 효과)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증거를 통한 효과 판단)을 ㉡ 내렸다.

구체적 예시가 제시되면 항상 당겨 읽으며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예시를 독해할 때는 무엇이 시행집단이고, 무엇이 비교집단인지, 사건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 예시가 제시되면 앞 내용을 통해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연결

이 구간은 정확하게 앞선 개념을 설명해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니 필히 앞선 개념을 당겨 읽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제시된 개념(혹은 다른 지문이라면 관점일 수도 있겠죠)을 확보하고

그에 맞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준 개념을 확보하고, 그를 당겨 읽으며 예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해당 구간을 통해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cf) 22.06 인과 / 21.11 예약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뭐 경제학에서도 1910년대에 이중차분법을 통해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했답니다. 실전이라면 그냥 경제학에서도 활용했다는 사실 정도를 챙겨갔으면 충분합니다.

- 코멘트

실전에서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 활용해 문제가 나오겠네!'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문단 마지막'에 경제학에서도 활용됐다는 정보를 푼 던져놨다는 정도겠죠.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문제 상황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연히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왜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파악해 봅시다.

예컨대 ㉠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예시를 통해 내용을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예시가 제시되면 예시 내용을 정리하고, 앞선 내용을 당겨 읽어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행집단 ↔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

이때 시행집단에서 사건(고용 교육) 실험?

⇒ 여기까지가 상황 정리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문제의 '원인'입니다. 원인을 파악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애랑 그렇지 않은 애랑 비교하면 정확하게 안 나오지 않나?" 정도만 생각했어도 문제 풀 때 시간을 좀 쓰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이런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가장 이상적인 독해는 평행추세 가정의 정의를 확보한 상태로, 이를 당겨 읽으며 독해하는 겁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죠.

평행추세 가정 : 사건 없을 시 시행집단의 변화 = 비교집단의 변화

그런데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

그러면 이는 사건(교육 프로그램)이 없을 시 시행집단의 변화와 비교집단의 변화가 같은 것이 아닐 건데? 이러면 산업 증가가 줄어서 나오지 않나? 시행집단은 이미 악조건이 있는데?

⇒ 이처럼 독해하면 ㉠ 관련된 문항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되면 베스트.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구체적 예시를 정리하고, 의미를 당겨 읽어 파악하여 맥락은 파악했어야 합니다.

tip - 문제의 '원인' 그에 맞는 해결

지문의 구조에만 매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글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거시적인 흐름을 잡는 것에 있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구조적으로라도 접근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구조를 안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구조를 통해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그 부분은 위와 같이 이해를 하고 진행하겠다는 인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꼭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앞선 개념을 통해 납득하겠다는 사고가 있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그런 반응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구조는 기본적으로 알아 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㉔ 높이라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건 “이전 시기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질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납득이 되면 베스트,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챙겨서 독해를 진행합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제시해줍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처럼 민감한 건 동시성 등이 더 중요할 수 있기에 동시성이 더 중요하답니다. 역시 앞선 개념에 대응되는 예시임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해당 지문은 개념 서술 후 구체적 예시를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지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 예시가 문제화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기에 우리는 선지 판단 시 구체적 예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cf) 21.11 예약 케이스 구분 / 해당 지문 <보기> 4번 선지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㉔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앞서 제시된 조건들을 충족)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때 신뢰도를 올리는 조건을 제시해줬습니다. 당연히 조건들은 문제화될 수 있고, 이 조건들을 지문 마지막에 두 가지를 나열해주고 있으니, 조건이 문제화될 수 있음을 체크하고 독해를 마무리했으면 충분합니다.

14.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의 결과와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사건 전후 변화를 효과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선지

② :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③ : 평행추세 가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④ : 스노의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이중차분법은 평행추세 가정이 성립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 스노의 연구에서 사건은 수원을 바꾼 것입니다. 즉 그 외 조건인 공기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코멘트

결국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개념, 그리고 이를 다룬 이중차분법, 평행추세 가정의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tip - 언어에 대한 민감함

과거 수능에서 %와 %p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와 %p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는 것과 시행집단의 전후를 비교하는 것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지만, 선지를 날려 읽어 비교 등의 워딩에만 집착하면 1번 선지를 고르기 어려워집니다.

나의 뇌피셜로 언어를 문게 읽는 습관에서 벗어나, 언어 자체를 정확하게 독해하는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15.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

답 ⑤

사고 과정을 점검하기 좋은 문항입니다. 우선 지문 독해 시 완벽하게 독해했다면 답이 바로 나오는 문항이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를 잡은 상황을 가정하고 사고 과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문 독해 시 최소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애랑 그렇지 않은 애랑 비교하면 정확하게 안 나오지 않나?” 정도의 인식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 판단 시 어떻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날 고용률 증가보다 어땠을까요?

시행집단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덜 그런 비교집단보다 당연히 고용률 증가가 작을 것입니다.

⇒ 상대적 판단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22.11 브레턴우즈에서도 중요한 사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의 변화에서 비교집단의 변화를 뺀 값을 효과로 평가합니다.

시행집단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 증가라는 효과 역시 축소되어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작을 것입니다.
⇒ 이 역시 상대적 판단의 중요성입니다.

- 코멘트

+ 지문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 당연히 문맥상 파악해야 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베스트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구조를 통해서라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상을 비교할 때 PCR 지문의 발색도처럼 절대적인 값을 묻는 것인지 브레턴우즈처럼 상대값을 묻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사고의 중요성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분석

판단하고자 하는 효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
⇒ 임금 상승이라는 사건에 따라 고용에 미친 효과를 판단해야 함.

여기서 임금 상승된 것은 P주 저임금 식당. 나머지는 임금 변화가 없음
⇒ P주 저임금 식당이 비교집단, 나머지는 임금 상승 안 됐으니 비교 집단이라는 점을 파악.

- 코멘트

오독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효과는 단순히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입니다. 그런데 P주 고임금 식당은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었습니다.

답 ④

지문에서 구체적 예시로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P주 저임금 식당이 시행집단인지 판단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P주 저임금 식당 변화는 1.3이니 변화는 1.3명이 맞습니다.

② :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③ : 이중차분법 공식은 <시행집단 변화 - 비교집단 변화 = 효과>입니다. 그러니 $1.3 - (-2.1) = 3.4$ 입니다. 그러니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증가로 평가됩니다.

⑤ :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코멘트

구체적 예시의 문제화, 조건의 중요성이라는 선지의 포인트와, 문항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보기>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지문에 내용과 대응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cf) 20.06 개체성 <보기>, 19.06 LFIA 키트 <보기>

17.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답 ③

총평

- 구체적 개념 확보
- 당겨 읽기, 대립쌍
- 구체적 예시의 중요성
- 공식은 정리한다.

지문 초반 제시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개념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지문의 첫 출발입니다. 이를 위해 관형절을 당겨 읽어 대립쌍을 파악해 두 집단에 대한 구분이 진행됐어야 합니다.

이후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식을 정리하고, 평행추세 가정의 관형절을 통해 개념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파악한 후 이후 제시되는 예시들을 정리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해당 지문의 핵심입니다.

개념을 던져주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구분)해 그것을 예시를 통해 스스로 납득하는 독해의 중요성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cf) 22.06 인과, 21. 11 예약

23.09 / (가) 아도르노의 예술관, (나)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한 비판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문 시작부터 아도르노의 대중 예술에 대한 관점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중 예술 = 상품 전락, 본질 상실, 은폐>와 같이 제시된 관점을 필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 22학년도 수능 헤겔의 미학 지문에서도 헤겔의 관점 '예술<종교>철학'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그에 대응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관점'이 제시되면 해당 관점을 필히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점이 구체화되며 글이 전개되든, 다른 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글이 전개되든 결국 관점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대응하고, 비교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앞서 관점을 확보하면 그대로 대응되는 내용입니다.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는 상품 =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 정도의 맥락으로 처리해줬으면 충분합니다.

- 코멘트

상식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이면 일반적으로 '공장식 생산' 정도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갖춰질 때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납니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계속 앞선 개념을 통해 납득해야 합니다. <대중 예술의 규격성 = 표준화되어 생산> 정도의 맥락이고, 이것을 수용하는 개인들 역시 <표준화되어 생산>된다는 정도의 맥락일 겁니다. 계속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계속 납득합니다.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대중 예술로 개인들 역시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마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수준>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tip - 다른 말 같은 뜻

결국 첫 문단의 내용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정도에 대한 배척'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단순한 문단 요약이 아닌, 첫 문단이 제시된 관점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재진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수능은 이와 같이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인 것을 스스로 찾을 것, 결국 문맥적 이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인 우리는 이를 위해 스스로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

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아도르노의 관점 내에서 대립쌍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로 통일하려는 것이 '동일성' 그 환원을 거부하는 것이 '비동일성'입니다. 관점 내(문장 내에서 이를 구분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에서 개념을 대립적으로 구분해주고 있으니 최소한 이 둘을 구분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대립쌍

동일성과 '비'동일성은 대놓고 '비-'를 통해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한 문장 내 혹은 한 관점 내에서 이렇게 대놓고 두 개념을 구분해준다면 우리는 필히 이 개념들을 구분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립쌍에 대한 이해는 지문 이해와 문제 풀이 시 굉장히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필히 민감한 반응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납득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만약 실전에서 납득이 어려웠다고, <아도르노는 비동일성> 정도로 관점은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되어 생산된다는 것은 결국 동일성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러니 해당 문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아도르노가 비동일성을 지향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그래도 악명 높은 인문 지문(헤겔, 가능 세계 등)에 비해서는 친절할 진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능에서는 문맥을 통한 납득을 넘어 문맥을 통해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영역까지 요구할 수 있음을 상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대응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도르노에게 동일성, 표준화된 상품 정도의 맥락일 겁니다. 그는 동일성을 지양하고, 비동일성을 지향하니까요. 그런 그가 추하고 불쾌한 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비동일성이 추하고 불쾌한 것 정도의 맥락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코멘트

물론 '비동일성 = 추하고 불쾌한 것'이라는 대응이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맥을 통해 기표(記標)가 달라도 기의(記意)를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능을 비롯한 언어 적성 시험류는 결국 다른 말 같은 뜻을 파악하며 정보를 자연스럽게 납득하는 것, 정리해야 할 정보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아도르노의 관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관점이 제시되면 필히 확보를 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 단순 지문 복붙 해설이 아닙니다. 이후 제시되는 내용을 통해 납득해야 할 정보이며, 이렇게 관점이 제시되었을 때는 그 자체로(자신만의 언

어로 치환하든지) 어떻게든 관점은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비동일성)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직시한 세계의 본질 체험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의 관점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비동일성을 지향하며,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사회 부조리)을 체험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관점을 확보하고, 그 의미를 대응하며 독해하는 것이 핵심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아도르노의 관점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동일화에 저항하면서 = 비동일성 / 직접적이지 않은> 예술을 가장 긍정합니다. 계속되는 재진술에 정보를 놓칠 수 있는데, 재진술 중 추가되는 정보는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 확보했어야 하는 정보가 여기서는 <직접적이지 않은>입니다.

- 코멘트

재진술 시 추가된 정보에 대한 파악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cf) 17.09 열역학의 변천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접적이지 않음>을 긍정하는 관점의 이유가 제시됩니다. 직접 표현하는 것도 동일화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납득될 수 있으면 베스트,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라도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사상을 바꾸고 계몽하려 하는 행위는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유를 납득했으면 베스트이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관점에 대한 이유이니, 글자 그대로라도 파악하고 갔어야 합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득해야 합니다. 앞서 아도르노의 관점 <비동일성, 비직접적 지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아도르노가 쇤베르크의 음악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은 <비동일성을 = 비동일성 / 체험하게 함으로써 =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느끼게>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제시된 관점을 통해 정보를 납득해야 합니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애초의 아도르노의 관점이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부조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적 산물이며, 미학이 그것을 읽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아도르노의 관점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위 예술을 긍정한 그이니 당연히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한다는 건 납득할 수 있습니다.

tip - 당겨 읽기 (관형절도 당겨 읽어라.)
전위 예술의 정의를 지문 내에서 제시해준 부분입니다.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자체를 속성으로 한다.'로 정의되는 것이고 이는 7번 문제의 정답을 판단하는 것에서 핵심적으로 기능합니다.
특정 대상을 수식해주는 관형어(절)이 있다면, 대상만을 확보하며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관형어(절)과 대상 모두를 하나의 의미로 확보해주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사소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독해 태도이므로 꼭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코멘트
- 핵심 확보 (관점 파악)
- 대립쌍
- 다른 말 같은 뜻
- 당겨 읽기

지문이 아도르노의 <관점 제시 ⇒ 문맥적 이해, 관점 구체화 ⇒ 문맥적 이해>의 반복입니다. 결국 핵심은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며 관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계속 대응시키며 정보를 납득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대립쌍으로 제시된 정보를 구분하며 그 구분된 것을 통해 다른 말 같은 뜻을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지문이 시작부터 아도르노의 미학을 평가하며 지문을 시작합니다. (가)의 아도르노의 미학을 상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예술의 자율성 ≙ 동일성이 아닌 비동일성> 정도의 맥락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베스트입니다.

- 코멘트
자율성을 비동일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 지문에 제시된 맥락 <아도르노는 동일성이 아닌 비동일성을 지향했고, 그것을 예술이 추구할 것으로 제시> 했다는 점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가능한 수준의 문맥적 이해입니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부조리)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이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매개>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사과를 표현한 것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 코멘트

(가)에서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다루고, (나)에서도 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당겨 읽으며 정보를 납득해야 합니다.

아도르노에게 사회의 본질은 앞서 (가)에서 제시되었던 직시한 세계의 본질(=사회 부조리)입니다.

이는 (가), (나) 지문이 개별적 지문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평가원의 기존 기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cf) 22.11 (가) 헤겔의 미학, (나)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하지만’이라고 제시됩니다. 앞서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은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가상을 표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닌 ‘주관적 인상’을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는 의미를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 그러나, 하지만 등의 역접에 세모만 치며 가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의미를 연결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해당 문장을 통해 미메시스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은 파악해야 합니다. 세잔의 작품 = ‘주관적 인상에 대한 색채와 기하적 표현 미메시스’ 정도로 개념을 확보하고 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하지만’이라고 했으니 아도르노와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인식까지 잡혀야 합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미메시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미메시스 = 주체의 관념을 재현> 정도로는 정리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이 역시 앞서 추상적으로 설명해준 개념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잔의 작품에 적용해보면 <주관적 인상 = 주체의 관념>일 것이고 <색채와 기하학적 표현 = 재현>일 겁니다. 이와 같이 앞선 문맥을 통해 정보를 대응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이라고 나왔으니 정리입니다. <감각될 수 없는 것 = 관념>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 = 재현> 정도로 계속 문맥을 통해 의미를 대응시키며 정보를 납득해야 합니다.

tip - 다른 말 같은 뜻
계속 다른 말 같은 뜻으로 내용을 재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계속 대응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국어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실전에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의식(혹은 의식적)으로 정보를 판단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코멘트

여기서 이런 대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휘력, 지식의 요인이 개입됩니다. 관념이라는 것에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도, 기출에 제시된(기출에 관념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왔죠) 내용을 통해 어렵더라도 알고 있다면 관념을 감각될 수 없는 것으로 연결하며 정보량을 줄이며 독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대놓고 ‘다시 말해’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측정된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 = 관념>을 재현한 것이 된다는 의미겠죠. 계속 대응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 결국 여기서 (나)의 글쓴이는 <관념(예술가의 사유 등)에 대한 재현을 예술로 인정>한다는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범위를 한정하는 아도르노와는 차이가 있겠죠.

+ 해당 부분은 나름대로 ‘접속 부사’를 친절하게 제시해줘서 문장의 의미 파악을 어렵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상성을 높이고 더욱 변별할 의지를 높인다면, 이런 접속 표현 등을 생략하며 독해 난도를 올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앞서 제시된 아도르노의 예술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술 = 예술가가 본 세계의 본질(부조리)을 감상자가 체험>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반복해서 제시해주고 있으니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코멘트

+ 해당 부분은 <예술은 예술가가 본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 정확하게 그에 대응되는 내용입니다. 헤겔 지문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가), (나) 형을 독해할 때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이처럼 적극적으로 연결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여기서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입니다. 계속 문맥적 대응을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아도르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아도르노에게 체험해야 할 대상은 세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사회 부조리에 국한시켰습니다. 즉 아도르노에게 <미적 체험 =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정형 체험>라는 맥락을 필히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비교 · 대조 쌍
실제 독해 시 a와 b가 대조되는 전개 방향이라면 a를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a이후 제시되는 b를 읽을 때는 a와의 공통점과 구분되는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즉 세잔의 예술을 제시해준 뒤 바로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제시했다면 필히 둘에 대한 구분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의 글쓴이 <관념(예술가의 사유 등)에 대한 재현을 예술로 인정> 한다는 것과 아도르노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한정시킴, 즉 더 작은 범주)

- 코멘트

+ 해당 부분에서 아도르노에게 “미적 체험 =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정형적 재현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을 확보했다면, 세잔의 미메시스를 부정하는 이유를 납득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세잔의 미메시스는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으니깐요. 문맥적 의미를 끊임없이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여기서 부조리에 국한시켰다는 것과,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은 결국 앞선 (가)에서 제시된 내용이 종합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 가 부정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를 추론시키는 문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연히 시험장에서도 ㉠으로 밑줄까지 표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전이라도 최소한 문맥을 통해 해당 이유를 판단해야 하니 이에 대해 물어본다면 돌아와서 ‘문맥을 통해’ 판단한다는 인식은 갖춰야 합니다. 그랬다면 시간을 좀 쓰더라도 답을 찾을 수는 있는 수준의 문항이었습니다.

- 코멘트

이는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바로 앞서 아도르노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켰고, 그를 체험시키는 진정한 예술의 형태를 비정형성으로 한정”했습니다.

세잔에 대한 미메시스는 관념에 대한 재현으로(이 관념에는 현대 사회의 부조리만 포함되지는 않죠. 다양한 예시들이 있었으니 이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가 국한한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적 체험을 예술의 체험을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켰고, 그를 체험시키는 진정한 예술의 형태를 비정형성으로 한정” 이유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를 부정할 것이라는 점을 애초에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6번 문항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집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한편’이라 제시되었으니 화제가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도르노의 미학이 예술 영역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최소한 이를 핵심으로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그런데 해당 지문의 맥락상 바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전위 예술’에 국한시킨 것이니 당연히 ‘전위 예술’ 영역으로 예술을 극도로 축소시켰다는 내용이 제시될 겁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화를 비판한 사람이 전위 예술만을 지향하고 있으니 이는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도르노의 관점만 확보했다면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아도르노식 예술의 동일화를 비판하는 관점이 제시됩니다. 사례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가볍게 돌아와서 처리해도 충분한 부분이며, 미학 기출 지문을 본 학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

수마저도 예술, 대중 예술도 비판 가능> 정도로 가볍게 정리된 상태로 독해를 마무리했으면 충분합니다.

- 코멘트

돌아올 줄 아는 것도 실력입니다.

(나) 코멘트
- 핵심 확보 (관점 파악)
- 다른 말 같은 뜻
- 추론은 문맥

(가) 지문에 제시된 아도르노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 지문에 제시된 아도르노의 관점(핵심)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맞춰 지문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인 6번 문항은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한 관점이 제시된 문맥을 통해서 추론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고난도 추론은 이와 같이 제시된 문맥(이는 예시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4.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가)는 개념의 '변화'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관된 아도르노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 : (가)와 (나) 모두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됩니다. (가)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제시하는 내용이라면, (나)는 그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냅니다.

㉡ : (가)에서는 쇤베르크의 전위 예술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나)에서는 세잔의 작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 (가)에는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 제시되지 않고, 아도르노의 견해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베냐민의 지적(견해)을 이용하여 아도르노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 (가)에서 제시된 아도르노의 견해를 (나)에서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의의와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코멘트

내용 전개 방식 문항은 선지의 모든 요소를 다 따져야 합니다.

5.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가 아닙니다.

나머지 선지

㉡ :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며,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략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 아도르노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이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 코멘트

단순 일치 수준의 문항입니다. 관점에 대한 물음은 제시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6.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발문 분석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를 부정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답 ㉠

세잔의 미메시스는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도르노에게 예술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험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아도르노 미학에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는 이유는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형태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사회 부조리 체험시키는 것에 국한)이 강조되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 코멘트

발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추론은 문맥에 의해 결정지어져야 합니다.

7.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답 ㉡

아도르노는 전위 예술이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런 아도르노의 관점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 : 동일화가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비동일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동일화가 예술과 무관하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예술의 일부인 대중 예술이 동일화의 범주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 : 애초에 아도르노가 '지양'하는 것이 동일성인데, 동일성으로 귀결된다고 아도르노가 반박할 리가 없습니다.

㉢ : 아도르노는 일관되게 대중 예술을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대중 예술에서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 : 아도르노의 관점의 관점은 동일성을 지양하며, 전위 예술은 명확하게 비동일성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예술입니다. 그런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전위 예술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동일화가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 코멘트

결국은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8.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분석

첫 번째 작품 : 기괴한 모습, 불편한 감정

⇒ 예술이 그 자체로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

두 번째 작품 : 사회 비판적인 연예인 대량 복제

⇒ 대량 복제면 아도르노는 싫어하지만, 사회 비판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세 번째 작품 : 서정적 풍경 사실적 묘사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난 그림

⇒ 미메시스(세잔의 작품)과 연결되는 정보.

이와 같이 <보기>를 독해하며 지문의 내용과 연결지어야 합니다.

답 ③

아도르노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 아도르노가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난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아도르노는 예술은 비동일성을 지녀야 하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② :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④ : (나)는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관점을 차용했습니다.

⑤ : (나)는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을 제시했고, 두 번째 작품은 그에 대응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코멘트

<보기> 분석에 적어둔 것처럼, <보기>를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cf) 19.06 LFIA 키트 <보기> 살모넬라균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①

23.09 / 유류분권의 목적, 적용 조건과 결과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내가 내 돈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겠죠. 최소한 당연하다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독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 코멘트

+ (통념상) 당연한 내용이 제시되면, 대부분의 경우 그와 대비되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이는 기출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 혹은 당연한 내용이 제시되고 그 당연함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이유, 원인) 등을 심화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조건’이 제시됩니다. ‘대가 없이’ 넘어가는 조건에서는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반복됩니다. ‘대가 없이’라는 ‘조건’에서는 ‘무관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필히 확보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 법 지문에서 조건은 핵심입니다. 당연히 조건에 따른 결과는 확보해야 합니다.

+ 상식적인 수준으로 ‘처분자 = 돈을 준 사람’ / ‘취득자 = 돈을 받은 사람’ 정도는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조건’이 제시됩니다.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고(상속 시작 조건) 상속자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상속이 시작되는 조건 = 무상 처분자 사망’과 조건의 결과 ‘상속인들의 유류분권 행사’를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조건은 답을 결정한다.
‘조건’이 제시됐을 때 정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해를 계속 진행한다면 지문에서 갑자기 상충된다 느끼는 부분이 나오고, 문제 풀이에서 낚시 선지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조건도 전제, 예외를 만드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선 딱 하나 ‘조건’이 나오면 생각을 정리한 뒤 독해를 진행한다는 독해 습관을 갖추시길 권장합니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동의 관계를 잡으면서 갑시다. <무상 처분자 = 피상속인 / 권리 의무는 상속인 것> 첫 문단에서 조건과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으니,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해당 조건들을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여기까지의 정보는 ‘이해’를 하며 진행하면 베스트이지만, 최소한 기출을 통해 얻은 태도 ‘조건에 대한 반응’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해설 역시 조건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 복붙이 아닌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때 진행되어야 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유류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필히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지문의 화제니까요. 이 <무상 처분 행위 없을 때 받을 돈 중 보장된 부분>이라는 유류분권의 개념을 필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실제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준 유류분의 개념을 확보하고 갔다면, 이후 내용 독해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 유류분 = 무상 처분 행위 없을 때 보장되는 부분)

구체적 예시를 제시해줍니다. 해당 예시가 유류분의 구체적 예시라는 인식을 필히 했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유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실전에서 저는 ‘한 명일 때는 1/2’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는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유류분 전부를 보장받지 못한다.’ + ‘구체적 수치는 돌아와서 확인한다.’는 인식은 갖춰줍니다.

- 코멘트

+ 구체적 예시는 필히 문제화됩니다. 이는 아래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f) 19.11 가능세계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 ‘만약 A면 A이다?’ =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

+ 구체적 수치는 돌아와서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구체적 수치는 돌아와서 확인하되, 수치 간 대소 비교 등의 상대적 파악 정도는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런 원칙에 맞게 저는 ‘유류분 즉, 보상되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군’ 정도로 생각하고 독해를 진행했고, 10번의 내용 일치 문제의 정답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이 일부인 거지, 유류분 부족액이 일부는 아닌데?’라는 판단)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무상 처분 없음)은 상속 개시 당시(사망하면)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무상 처분 없음) 산정한다.

해당 부분을 어떻게 독해했는지에 따라 문제 풀이에 느껴지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사고 과정을 잘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 1.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결국 무상 처분이 없었을 이익이다. (받을 수 있던 것이니)
- 2. 상속 개시 당시 = 상속 개시는 사망하면 진행되는 것
- 3. 피상속인이 가졌던(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것)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것 =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을 가치(무상 처분 없었을 이익)

결국 <무상 처분 없을 시 =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을 이익 = 피상속

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가치>입니다.

이렇게 다른 말 같은 뜻을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다른 말 같은 뜻

계속 다른 말 같은 뜻으로 내용을 재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계속 대응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국어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실전에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의식(혹은 의식적)으로 정보를 판단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코멘트

한편 위와 같이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식은 정리한다”는 인식에 근거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을 이익 =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가치>라는 점은 정리했어야 합니다.

cf) 20. 11 BIS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류분의 목적을 제시해줍니다. 법 지문에서 법의 목적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말 실전에서 글이 잘 안 읽힌다면, “목적”이라고 적어두고 가는 행동이라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 코멘트

+ 여기서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은 뭘까요? 앞서 다른 말 같은 뜻을 잡으며 독해를 진행했다면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 = 무상 처분 없을 시>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의 목적은 핵심입니다.

⇒ 결국 법의 목적이 핵심이라는 점 + 다른 말 같은 뜻을 파악하는 것이 진행됐다면 12번 문항을 수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케이스가 전환됩니다. 이제는 ‘일부는 상속받은 경우’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필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필히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일부는 상속받은 경우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중에서 일부만 반환받습니다. 만약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도 ‘일부는 받은 경우 = 유류분 중 일부만 반환’은 필히 구분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납득하면 당연합니다. 앞서 유류분은 상속받을 수 있던 1/2만 보장됩니다. 그러니 상속받을 수 있던 1/2이 이미 받은 것을 포함해서 1/2가 맞췄다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완벽하게 수치로 납득되지 않았어도 ‘이미 좀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정도의 생각만 했어도 훌륭합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납득하며 독해하는 것이 베스트, 그렇지 못하더라도 위에 서술한 것처럼 최소한 독해 태도에 의한 정리는 진행됐어야 합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개념을 공식을 통해 제시합니다. 실전에서 저는 ‘뺀 값인’을 보고 바로 <유류분 해당 이익(보장 기대 이익) - 이미 상속 =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공식은 정리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 코멘트

+ 이를 앞선 개념에 연결한다면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문맥을 통해 다른 말 같은 뜻을 잡으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말 같은 뜻을 잡았다면 더욱 명확하게 10번 문항의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개념을 제시해주면 필히 개념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개념의 기표(記標)가 유사할 때 우리는 그들을 구분하는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갖춰야 합니다.

cf) %와 %p의 차이.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법지문답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류분 부족액은 ‘돈’으로 진행되지만 항상 돈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을 제시하며 예외적 경우를 제시합니다. ‘무상 처분 재산이 돈 이외의 재산’이라는 ‘조건’에서는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됩니다. 이 역시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필히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법지문입니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예외적 경우에서 예외를 제시합니다. ‘물건이 아닌데 반환이 불가능한’ ‘조건’에서는 ‘돈으로 반환’하는 결과가 제시됩니다. 필히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합의되는 조건’에서는 또 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역시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해설이 거의 앵무새같이 ‘조건’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며 독해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 복붙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지문 기출에서 평가원이 조건이 다양하게 제시될 때 평가원이 요구한 것은 결국 ‘조건’에 따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대놓고 물음을 제시해줬으니 핵심입니다. 무상 처분된 물건은 과연 어떤 형태로 반환될지, 당연히 우리는 ‘조건’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물건 가치’라는 ‘조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조건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구분해놔야 합니다.

- 코멘트

저는 여기서 유류분 부족액 정도로 공식을 정리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더욱 수월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물건을 쪼갤 수는 없으니 소유권을 구분하겠죠. 지분이라는 개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니 평이하게 진행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또 물음을 제시합니다. 시가 변동 시 기준 시점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역시 당연히 '조건'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누가 법을 제정하는지, 법률이 제정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적용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법의 결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 경우에 대한 구분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기출을 통해 요구된 사항입니다.

①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류분의 취지 = 제정 목적'입니다. 즉 상속 개시 당시 = 사망한 뒤,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유류분의 제정 목적은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는, 기대했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니깐요. 결국 법의 목적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놓고 조건에 따른 구분을 제시합니다.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비롯된 것은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취득 당시로 진행'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올린 부분은 보장받아야겠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상속 개시 당시 / 취득 당시)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사망 이후)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 원인을 가리지 않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분'의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 개시 당시(사망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결과를 잡고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tip - 한정어
'무엇이든' ≙ '모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지문 독해 시에 핵심에 결부된 정보든, 부가적으로 제시된 정보든 응당 민감하게 처리해야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범주 파악, 내용 이해에 필수적이고, 곧잘 문제화되는 부분입니다.

- 코멘트

간혹 여기서 당겨 읽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보기> 문항의 답은 맞췄지만 공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를 집요하게 물어볼 수도 있기에 당겨 읽기를 통해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가 기준이라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해당 선지를 적절하다고 고르지 못한 학생은

※ 유류분과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거나, 구분했어도 선지 판단 시 오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문에 예시를 통해 '~1/2만 보장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부족액이 아닌, 유류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를 오독하여 보장 범위가 '일부에 한정된다'라고 오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념어들에 대한 구분을 놓친 것입니다. 지문 내에서 개념어의 기표가 유사한데, 정의가 다를 때 우리는 이것을 필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갖추고' 기표가 유사할 때 구분되는 개념이라면 필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④ :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즉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⑤ :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코멘트

+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갖춰야 합니다.

+ 조건은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④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선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답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조건을 이해하여 선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면 상속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무상 취득자의 지분은 더 작아집니다.

③ :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⑤ :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 합니다. 즉 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코멘트

조건에 맞춰 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1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답 ②

유류분의 목적을 상기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목적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 =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이므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나머지 선지&코멘트

법의 '목적'은 핵심입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분석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 소유 시 300 / 사망했을 때 = 상속 개시 = 700

B 물건은 계속 100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 $\frac{\text{유류분 부족액}}{\text{물건의 가치}}$

해당 문항은 1번 선지부터 서술하겠습니다.

① :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A(700) + B(100) = 800이므로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되는 '병'의 유류분은 400입니다. 여기서 지금 B(100)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400-100 = 300입니다.

② :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A는 700이고 유류분 부족액인 300이므로 $\frac{3}{7}$ 이 맞습니다.

③ : A 물건이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300) + B(100)/2 = 200이고, 200 - 100(B의 가격)이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 됩니다.

④ :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면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뒤, 지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노력이 인정돼 유류분 부족액이 100이 되고, 그를 근거로 지분을 계산할 때는 700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물건의 $\frac{1}{7}$ 지분이 됩니다.

⑤ : 선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결국 갑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즉 갑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B의 가격은 100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한 선지인데 결국 지문 독해 시 '상속 개시 = 사망 이후 시작'이라는 조건을 파악한 뒤 이후 제시되는 내용을 대응시키며 독해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선지에서까지도 조건에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 코멘트

조건을 구분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당겨 읽기를 통해 공식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합니다.

총평

- 법 지문의 핵심(목적, 조건)
- 다른 말 같은 뜻
- 언어에 대한 민감함 / 구체적 개념 확보

법 지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지문입니다. 유류분의 제정 목적(기대 이익 일부 보장)을 파악한 뒤, 유류분이 배당되는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를 구분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만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독해를 진행해도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있지만, 답을 맞추는 것은 가능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확신을 가지고'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문에 제시된 다른 말 같은 뜻을 잡으며(무상 처분자 사망 후 = 상속 개시 / 무상 처분 행위 없다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 + 무상 취득자가 받은 재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기출을 통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독해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두 가지 태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평가원의 의도를 해당 지문을 통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두 개념의 기표(記標)가 유사할 때 우리는 그들을 구분하는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언어에 대한 민감함도 꼭 갖춰가시길 바랍니다.

23.09 / 웹 페이지 순서 정하기. 중요도와 적합도를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상식적인 얘기로 지문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검색어'를 넣으면 그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가 화면에 뜹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독해를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명확하게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제 지문에 제시되는 정보를 대할 때 우리는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함"이라는 목적을 위한 정보라는 것을 상기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다른 제재의 지문에서도 그렇지만, 기술에서 '목적'은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순서를 정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방식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사용됩니다. 당연히 '목적'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며, 이 둘을 '구분'한다는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 코멘트

cf) 21.11 모델링, 렌더링 지문에서는 모델링에 대한 정보와 렌더링에 대한 정보를 구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술에서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면 이는 필히 구분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지문에서도 14번 문제의 3번 선지, 15번 문제와 같이 중요도와 적합도를 구분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목적'을 계속 생각합시다.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빨리"하기 위해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둡니다. 당연히 기술이 진행되는 '과정'이니 필히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납득하면 당연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여주고 싶으니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미리' 수집해두겠죠. 그러면 빠르게 보여주기 쉬우니까요. 이렇게 정보를 납득하며 독해하는 것이 베스트이고, 그렇지 못했더라도 '기술의 진행 과정'을 제시하니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덱스 = 알파벳순 정리, 웹 페이지, 단어 빈도수, 중요도>. 앞서 워딩만 제시해준 인덱스에 대해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니 필히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이런 서술 흐름은 익숙해야 합니다. 'A는 B이다.' 'B는~' 식으로 서술 해주면 구체적으로 서술된 개념을 확보해야 하고, 만약 워딩만 제시되면 워딩 정도만 체크하고 독해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식으로 인덱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이렇게 제시된 개념은 필히 확보해야 함을 배워가야 합니다.

①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제 앞서 대놓고 대표적이라고 제시한 중요도에 대한 본격적 설명이 시작됩니다.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링크 분석 기법이니, 중요도의 수치화 정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베스트입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뉜다.

대놓고 링크 분석 기법의 과정, 공식을 제시합니다.

<A값 = ∑A를 링크한 웹페이지로 받는 값들>

정도로 공식을 정리하고,

<A값 = ∑A를 링크한 웹페이지로 받는 값들> ⇒ <A값은 A링크 웹페이지 균등 분배>와 같이 공식을 정리하며 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 코멘트

공식이 정리되면 정리하고 가는 것이 속 편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공식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갔어도 <보기> 문항을 푸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서 공식이 자연스럽게 납득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정리해야 하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식이 문항으로 출제된다면 결국 우리는 식을 활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20년 가까이 수학을, 최소한 사칙 연산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에 공식이 제시된다면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가 암산보다 쓰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른 것처럼요.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즉'이라고 해줬으니 당연히 내용 정리입니다. 앞서 제시된 공식을 정리했다면,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 균등 분배니까 각각 2 보내지겠군" 정도로 자연스럽게 재진술 수준으로 정보를 납득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연결

이 구간은 정확하게 앞선 개념을 설명해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니 필히 앞선 개념을 당겨 읽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제시된 개념(혹은 다른 지문이라면 관점일 수도 있겠죠)을 확보하고 그에 맞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준 개념을 확보하고, 그를 당겨 읽으며 예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해당 구간을 통해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cf) 22.06 인과 / 21.11 예약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균등 분배한 값 그대로 전송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균등 전송된 값 × 댄핑 인자 = 실제 받는 값>과 같이 계속 공식을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당연히 앞서 'A는 B이다.' 'B는~' 식으로 서술된 것처럼 댄핑 인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고 이 개념은 필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댄핑 인자의 정의를 정확하게 확보합니다. 다른 페이지로 '가지 않는' 비율이 댄핑 인자입니다. 'A는 B이다.' 'B는~' 식으로 제시된 개념은 필히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 오독하면 안 됩니다.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댄핑 인자의 정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준 정의는 제발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 모르겠다면 그에 대해 물어봤을 때 돌아와서 판단해야 합니다.

+ 당연히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이니 1 미만일 겁니다. 모두가 이동하지 않을 경우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100% = 1 이니까요.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놓고 한정어들을 통해 조건을 제시합니다. 댄핑 인자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조건이니 공식에 적용시킬 때 이 조건을 충족시키며 접근해야 합니다.

tip - 한정어
모든, 동일한 등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지문 독해 시에 핵심에 결부된 정보든, 부가적으로 제시된 정보든 응당 민감하게 처리해야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범주 파악, 내용 이해에 필수적이고, 곤잘 문제화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그 비율(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가 0.8이라고 구체적 예시를 통해 수치를 제시합니다. 구체적 수치를 완벽하게 암기하기 힘들다면 이에 대해 물어볼 때 돌아와서 확인한다는 인식을 갖춰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20% = 0.2, <1 - 이동하지 않는 비율 = 댄핑 인자>라는 계산식은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결국 <1 - 이동하지 않는 비율 = 이동하는 비율>이라는 점까지 생각했으면 베스트입니다.

- 코멘트

이해해본다면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댄핑 인자는 중요도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2.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웹 페이지의 중요성이 높다는 겁니다.
3.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페이지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4. 결국 중요도는 상대적인 값입니다. 자신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면 다른 페이지에게 전해주는 값이 적어져야겠죠. 상대적으로 자신의 중요도가 더 높아야 하니까요.
5. 그러니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댄핑 인자는 감소할 겁니다.

저도 처음 독해할 때 '1~5'까지의 해설 수준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 그렇지만, 글의 핵심이 '순서'를 정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되는 것이고, '댄핑 인자가 연결되는 웹 페이지의 중요도에 관련된 개념'이라는 개념을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하여 이와 유사한 수준의 납

득은 진행되었습니다.

현 수능에서 최소한 일치 문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념은 필히 확보해야 하고, 이해와 추론을 묻는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치(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를 납득하며 독해를 진행하려 해야 합니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위에 제시된 공식에 댄핑 인자를 곱하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 곧 최종적인 값이 제시됩니다. 공식만 정리했다면 가볍게 '댄핑 인자 곱하면 끝이네' 정도로 처리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중요도는 불변하는 값이 아니라 가변하는 값이라는 정도로 정리했으면 충분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변할 수 있는 값이니 납득하기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tip - 고정값과 유동 값

고정된 값인지 변할 수 있는 값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관계식을 대할 때 '고정값과 유동 값'에 대한 인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cf) 22.11 트리핀 딜레마

⇒ 금 본위 체제에서 각 기축 통화의 가치는 금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값입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상식적으로 만들어진 인덱스에서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면 '적합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될 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적합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필히 인식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적합도에 대한 비례 관계를 제시해 줍니다. 세 가지 변수에 대한 비례 관계를 제시해줬으니, 최소한 혼동하지 않게 각각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단어 빈도↑-적합도↑ / 다른 웹페이지 수↓-적합도↑ / 평균 글자 수↓-적합도↑>

- 코멘트

비례 관계가 제시되면 최소한 이와 같이 정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1. 해당 검색어가 많이 해당되면 당연히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2.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 검색어에 대한 웹페이지에 적합한 페이지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른 웹 페이지 수가 적으면 적합도가 오를거죠.

3. 글자 수가 적는데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구난방 써 놓은 것보다 핵심적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납득하며 독해를 진행한다면 비례 관계를 압도적으로 이해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우리는 최소한 정리가 진행되는 태도 역시 갖춰야 합니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이렇게 중요도와 적합도가 계산되면 이를 바탕으로 웹 페이지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당연히 페이지 순서를 정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된 정보들이니 자연스럽게 납득하며 독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②

댐핑 인자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일 때 댐핑 인자는 0.8입니다. 즉 <math>1 - \text{이동하지 않는 비율} = \text{댐핑 인자}>입니다. 따라서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으면(이동하지 않는 비율의 반대죠) 댐핑 인자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념은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치 문항에서도 선지에서 이를 역추론하여 답을 도출할 것까지를 요구했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합니다. 납득하며 독해했다면 바로 고를 수 있는 선지이고, 그러지 않았더라도 과정을 정리했다면 충분히 쉽게 고를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③ : 링크 분석 기법은 중요도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지문에서 확보했어야 합니다.

④ :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입니다. 즉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값만 반영됩니다. 공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⑤ :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로 화면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글의 목적 '순서'를 묻고 있습니다.

- 코멘트

단순 일치 문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각 선지별로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채롭습니다. 각 선지 해설 이후 적어둔 포인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더 강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5. ㉠, ㉡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 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중요도
- ㉡ : 적합도

답 ㉡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설명한다면 적합도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적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적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 ㉠ :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는 ㉡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 : 중요도는 다른 사이트에서 내가 '받는' 비율입니다.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많이 포함시켜도 ㉠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 알파벳 순이라 제시된 것은 인덱스를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인덱스에 관련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인과는 조심해야 합니다. cf)19.09 STM <보기>
- ㉣ :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전체 글자수를 많게 하면 적합도를 높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코멘트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합니다. 또한 제시된 관계는 납득하고, 최소한 정리라도 해야 합니다.

16. <보기>는 웹 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분석

d와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 댄핑 인자는 0.5
<보기>의 그림만을 고려한다면

$$b \text{는 } c \text{에게서만 값을 받으므로 } 16 \times 1(c \text{는 } b \text{에게만 값을 줌}) \times 0.5 = 8$$

$$c \text{는 } b \text{에게서만 값을 받으므로 } 8 \times 0.5(b \text{는 } a \text{와 } c \text{에게 값을 줌}) \times 0.5 = 2$$

$$a \text{는 } d \text{와 } b \text{에게서 값을 받으므로 } 16 \times 1(d \text{는 } a \text{에게만 값을 줌}) \times 0.5 + 8 \times 0.5(b \text{는 } a \text{와 } c \text{에 값을 줌}) \times 0.5 = 8 + 2 = 10$$

즉 <보기>의 조건대로 정리된다면
<a = 10, b = 8, c = 2, d, e = 16>입니다.

답 ㉡

e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된 경우를 계산하면 됩니다. e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되면 e값은 b와 c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그러면 b에게 $8 \times 0.5 = 4$ 를 가지게 되고, c에게 역시 4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c는 b에게도 값을 받는데, 4를 받은 b값은 a와 c에게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즉 $4 \times 0.5(a \text{와 } c \text{ 균등 분배}) \times 0.5(\text{댄핑}) = 1$ 이므로 c는 중요도는 $4(e \text{ 쪽에서 받은}) + 1(b \text{ 쪽에서 받은}) = 5$ 입니다.

나머지 선지

- ㉠ : a의 중요도는 10입니다. <보기> 분석 참고.
- ㉡ : a가 b에게 받는 값은 2, d에게 받는 값은 8입니다.
- ㉢ : a로의 링크가 끊어져도 b의 중요도는 변화가 없이 8입니다.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값은 c에게만 나눠줍니다. 그러면 $8 \times 0.5(\text{댄핑}) = 4$ 가 됩니다. 그러면 c의 중요도는 4로 변하는 것으로 b의 중요도(8)과 c의 중요도(4)는 같지 않습니다.
- ㉣ : e에서 a로의 링크가 연결되면 e값은 a와 b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그러면 b는 $16 \times 0.5(e \text{ 값을 } a \text{와 균등 분배}) \times 0.5(\text{댄핑}) = 4$ 가 됩니다. 즉 이 경우 b의 중요도는 4입니다.

- 코멘트

복잡한 것 같지만, 사칙 연산 수준입니다. 공식을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해당 문항을 통해 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답 ㉠

총평

- 기술의 목적
- 공식 정리 & 납득
-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비교·대조)

지문 초반 제시된 기술의 목적(순서 정하기)을 상기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에 맞춰 이후 제시되는 중요도, 적합도에 대한 정보가 결국 '순서'에 대한 정보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독해할 때 어려움을 느낀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공식은 정리하며 독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해당 지문을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중요도와 적합도를 독해하며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파악해 선지에서 각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까지 챙겨가기 좋은 지문입니다.